

防災의 科學化 追求



金 永 坤

〈韓國經濟新聞 編輯副局長〉

封建시대 후기에 발달된 유럽의 都市들에게 있어서는 화재의 위협이 가장 큰 문제였다.

단순히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또 비대화하게 되자 도시마다 환경의 악화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처마와 처마가 맞닿은 비좁은 도시공간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

사실 경제가 급격히 발달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거의 환경이라거나 防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마련이다. 아니 무관심이라기보다 거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생각의 여유가 없고 또 물질적 뒷바침도 없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모든 人間의 근원적인 福祉厚生은 잠시 뒤로 제쳐두고 경제규모의 양적인 확대에만 전력해 온 것도 어쩌면 이 成長 우선단계의 공통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면 防災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된다. 아니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防災문제를 成長의 과정에서 소홀히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의 규모를 늘려서 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火災의 위험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너무 자주 듣는 警告에 인관은 마비 현상적인 무감각 증상을 나타내기 마

련인데 이러한 단계에서 火災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성장의 蓄積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 가능액의 규모에 비례해서 防災의 투자도 거액화되고 또 필수적이어야 되는 법이다.

더구나 현대에 보다 증시되어야 할 것은 경제사회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서 火災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고 또 형태와 성격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防災 수단도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는 절이다.

수세기 전에 고층빌딩의 화재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단적인 예로 들 수 있거니와 앞으로 도 에너지의 熱效率 고도화와 대단위화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여기에 대응한 고도의 防災를 필요로 하고 있음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이에 덧붙여 강조되어야 할 것은 防災가 이제는 단순한 기술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시대를 지나 이 자체가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로까지 발전되어야 할만큼 기계화 또는 과학화가 요청되고 있다는 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防災의 과학적 연구 필요성이 크며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점이 뒤늦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